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06.12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유럽선거 결과, 연구혁신 정책에는 큰 변화 없을 전망(6.10)

- 전문가들은 유럽의회 의 가장 큰 정당(EPP, S&D, Renew Europe)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연구혁신 정책 우선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유럽의회에서 이 세 정당은 EU 연구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가장 큰 지지자였으며, 앞으로도 동일한 노선을 이어갈 전망
- 한편, 많은 정당과 그룹의 공약 선언문이 EU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따라 지난 5년간 유럽연합 정책의 중심이었던 녹색 전환 정책이 희생 될 것으로 보임(기후 친화적 정당인 '정체성과 민주주의' 정당 의원수 감소 등)
- 또한, 22개 정당의 R&I 정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, 많은 정당이 EU 총 GDP의 최소 3%를 연구혁신에 투자해야 할 것과 연구자금 관련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일반적으로 극우로 묘사되는 정당이 프랑스, 독일, 오스트리아에서 크게 득세함에 따라 EU 이사회에 극우파 총리가 들어오고 집행위원회에 극우파 출신 집행위원이 선출될 수도 있는 등 EU R&I 의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
-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럽 극우파가 여러 구체적 문제로 분열되어 있으며, 많은 정당이 직접적으로 R&I에 반대하지 않는 등 EU의 일반적인 지출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 있으나 그 결과가 현재 R&I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

○ 유럽연구위원회(ERC), '24년부터 Advanced Grants에 럽섬 펀딩 도입(6.5)

- 이 파일럿 제도는 연구자와 호스트 기관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함으로, 재무 회계, 비용 청구, 근무 시간 기록, 재무 감사가 필요 없어짐
- 제안서에서 예산을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하나, 일단 그랜트 협약이 체결되면 지출에 대한 통제는 없으며, 프로젝트 시작 시 그랜트의 80%가, 완료 시 나머지 20%가 지급

○ 집행위, 헝가리의 HE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입장 표명(6.5)

- '22년 12월 이후 21개 대학을 포함한 30여 개의 헝가리 기관은 거버넌스 구조가 법치 원칙을 위반한다는 우려로 호라이즌 유럽 및 Erasmus+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
- 한편, 이는 해당 기관이 EU 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며 프로젝트 참여 가능 여부와는 상관이 없음

- (기타) ▲유럽 대학 집행위에 이스라엘과의 R&D 협력에 관한 지침 제공 촉구(6.6) ▲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, 연구 인프라 컨퍼런스 개최(6.4~5) ▲집행위, 연구자의 경력 개발 정보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출시(6.10)